

창조경제의 주춧돌인 광고, 저변 확대 힘써야



지금은 ‘창의성’이 국가와 개인의 풍요로움을 결정하는 창조경제 시대입니다.

특히, 광고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과 제품을 알리는 창조경제의 주춧돌로서 경제의 선순환 성장을 돕는 한편, 기업과 소비자를 잇는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치올림픽, 브라질월드컵 등의 국제행사부터 뉴욕 중심지인 타임스퀘어까지 국내를 넘어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광고를 통해 우리 기업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광고산업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 10위권의 광고 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광고시장의 괄목할만한 저변 확대와 더불어 시대적 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광고시장 조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광고주협회는 ‘Free Markets, Free Communication, Free Choice’를 기조로 매년 한국광고주대회를 열고, 광고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광고산업의 선순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만들고 그 해법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 한해 협회 사업에 관심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회원사를 비롯한 각계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이정제